

# 사림(士林)의 도시(上)

## The town of chu-tz scholars (a first part)

이 글은 필자가 그동안 틈틈이 짬을 내어 16세기 선비들이 계획을 했던 정소를 중심으로 답사하며 생각했던 내용들을 산문의 형식을 빌려 정리한 것이다. 말하자면 서원 그리고 정원과 정자를 대상으로 자연 속에 모여드는 선비들의 생각과 이야기를 쓴 글이다. 그래서 이번 연재의 서론격인 전반부는 한국철학사와 건축사에 깊은 영향을 남긴 퇴계 이황이 한양을 떠나 소수서원을 거쳐 안동의 도산서당으로 가는 동안 일어난 일들을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퇴계 이황의 눈을 통해 조선시대 선비들이 왜 서원과 정자와 정원을 만들었는가를 풀어보자고 쓴 글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사림의 도시라는 제목의 글을 쓰려고 했던 것은 전혀 아니다. 20여 년 전 필자는 건축학회에 소재원에 대하여 하서 김인후의 소재원 48詠 시조 속에 내재한 시적 이미지와 상관하여 논문을 발표한 이래 평소 조선시대 사림과 경관은 매우 특이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선비들이 지닌 경관이미지에 대한 관심을 정리할 심산으로 소재원과 보길도 그리고 도산서당에 대한 답사와 조사를 해왔다.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자 16세기 조선시대는 별난 시대였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우선 당시 인물들의 인간관계를 생각해보면 소재원을 조영한 사람은 양산보와 하서 김인후는 그와는 사돈지간이었다. 그리고 김인후와 같이 성균관에 머물렀던 퇴계 이황 역시 말년에 도산서당을 조성했던 것이다. 말하자면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퇴계 이황 이들은 서로 같은 시대를 살다간 면식을 지닌 사람들이었던 셈이다. 동시에 모두 경관이 빼어난 장소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천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인연의 실태라가 그렇게까지 모진 것인지 몰라도 양산보의 소재원이 있는 성산과 고산 윤선도의 보길도 사이에 기막힌 사연이 숨어있었다. 바로 양산보와 김인후 그리고 호남 유림의 중심지 성산에서 자란 송강 정철이 서인의 정여립 모반사건을 취조할 때 그의 혹

독한 문초를 못 이기고 숨진 사람이 바로 고산 윤선도의 증조부였던 까닭이다. 말하자면 관동별곡을 쓴 가사문학의 대부 정철과 시인의 경지에 있던 시조의 고수 고산 윤선도 사이에 기막힌 악연이 있었던 셈이다. 이런 점에서 1500년에서 1650년 대 사이 한국사상사와 문학사에 가장 빛나는 영남과 호남의 인물들이 모두 하나같이 자연을 배경으로 인연의 고리에 물려있었고 이들은 한국건축의 대표적인 정원과 서원을 남긴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이들이 남긴 자취는 개별적인 것으로 각론적 입장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뚜렷한 사조를 지닌 시대의 흐름으로 정리할 문제였다. 그뿐만 아니다. 이들이 남긴 삶의 궤적 속에 영남의 선비들은 서원으로 호남의 선비들은 정자로...인물들이 끊임없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목격한 필자는 바로 이곳이 사림의 도시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16세기 조선에는 이를 발화시킨 자연과 생명과 삶에 대한 사고(思考)가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퇴계 이황의 이야기를 뒤이어 구체적으로 서원과 정원이야기로,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그리고 소재원과 관동별곡 그리고 보길도를 중심으로 상, 하 10여회씩 총 20회 분량으로 전개된다.

이 글을 통한 필자의 바람은 독자와 함께 도시라는 거대한 기계적 도구들의 틀 속에 마을과 촌락을 포함시킨 현대도시와 대별되는 새로운 도시에 대한 담론을 나누고 싶은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가 이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는 녹색건축, 녹색도시를 풀어갈 인문학적 실마리와 출발선임을 알리고 싶다. 만약 이를 계기로 생명이 가득한 지구를 만들어 가야는 미래의 짐을 지고 우리가 물질문명으로 가득한 도시문화의 터널 속을 제대로 걸어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이런 기대를 하면 할수록 여행기 비슷한 답사록과 좀 다른 형식으로 글을 써야 한다는 소리없는 부담이 그림자처럼 필자를 떠나지 않을 것 같다.

### 목 차

1. 여로(旅路), 영원한 생명의 도시 찾기 A journey, searching for the Eternal life giving town
2. 퍼즐 Puzzle
3. 역사 코드 만들기 3. 단양(丹陽)지도 읽기  
Making historical code 3. Reading Danyang Map
4. 퍼즐 1. 퇴계 이황과 단양학교  
The Chu-tz scholar Toegae-Lee whang and Danyang haengkyo
5. 퍼즐 2. 퇴계 이황과 단양  
Toegae-Lee whang and Danyang
6. 퍼즐 3. 퇴계 이황과 단양  
Toegae-Lee whang and Danyang
7. 퍼즐 4. 퇴계 이황과 단양, 산과 산길 그리고 산촌. Mountain, it's path and village
8. 퍼즐 5. 퇴계 이황과 단양. Tdegae-Lee Whang and Danyang
9. 죽령 고개를 넘나든 사림(士林) 그들은 누구인가.  
Who is him, the Chu-tz scholar, going over the Ridge of gukyung
10. 동기현과 사림. The Chu-tz scholar in Iyungki
11. 소수서원 가는 길 A Way to the Sosu seowon

**필자 : 한재수, 현 한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by Han, Jae-su, HKIRA

한재수 교수는 한양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건축사사무소 신아건축에 근무한바 있으며 한옥현장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지난 10년 간 농림부 과제로 한옥 산업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와 관련된 2가지 특허출원과 함께 전통목조 기법의 현대화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관련학회에 발표한 바 있다. 저서로 건축학자가 풀어낸 「황도개경의 비밀(2002, 도서출판 옛오늘)」이 있으며 조선시대 음식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조선시대 도시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한라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 대한건축학회 이사, 논문집 편집위원, 역사위원회 위원장
- 한국건축학회 논문집 편집위원
- 문화재청 문화재 전문위원
- 강원도 문화재 위원회 위원,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위원

## 퍼즐 5. 퇴계 이항과 단양

### - Tdegae-Lee Whang and Danyang -

옛 도시의 흔적, 그것은 역사란 박제된 박물관의 전시물목이 아니라 타오르는 생명의 불꽃임을 알리는 불씨다.

해를 넘기고 입월중순에 접어들면서 소한이 지난 지 열흘이 넘었지만 대한을 며칠 앞둔 날씨는 절기와 달리 산과 들판에 강추위가 본격적으로 엄습하기 시작했다. 대한(大寒)이 소한(小寒) 집에서 얼어 죽었다는 말을 절감이라도 하라는 듯 남쪽으로 기울대로 기운 해는 늦게 뜨고 일찍 졌다. 온기 잃은 햇살이나마 서산에 가리우고 나면 추위는 이내 어둠살과 함께 골골을, 상방리와 중방리 그리고 하방리 마을을 채워왔다. 밤이 깊어갈수록 추위가 기승을 부리자 두악산 마저 추위를 견디기 어려운 듯 이따금씩 긴 울음을 울곤 했다. 단구협 골을 타고 온 남한강바람이 하방리에 세차게 불고 있었다. 그 바람이 성재산 등성이를 스치고 가면 나뭇가지 시달림 당하는 소리와 솔잎들이 휩쓸리는 소리가 섞여 퍼져 어둠 속을 방황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자 썰렁 산이 울었다. 소백산줄기에 뿌리를 둔 두악산은 줄기가 길고 골이 깊어서 그런지 계곡을 타고 들려오는 산울림은 둔중하고 긴 파장으로 울려나갔다. 세찬 바람

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그 울림은 흡사 쇠북소리 같았다. 그러나 여러 가닥으로 얽히고설킨 소리 가운데 낮고 긴 여음을 남기는 그 울림을 세심하게 짚어 보면 두 소리는 엇비슷하게 서로 닮아 있어 같은 소리인 듯했다. 그러나 느낌마저 속일 수는 없었다. 쇠북소리가 귀에 다가와 마음에 닿는 소리로 만들어진 울림이라면 산울림은 가슴을 울려 가슴을 치는 소리, 바로 근원적인 울림이었기 때문이다. 그건 쇠가 울리는 소리와 땅이 울리는 소리의 다름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고 인공적인 소리가 자연적인 소리를 닮을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이기도 했다. 하지만 마치 바람처럼, 안개처럼 떠도는 그 소리는 분명히 있으면서도 막상 잡히지는 않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사이로 눈에 들어오는 하방리와 상방리에서 사라진 단양의 도시구조를 찾는 일도 그 비슷했다. 나는 어둠 속에 속살을 감춘 두악산 줄기를 따라 발길을 옮기며 원래 단양읍 하방리에 있던 군청 터를 중심으로 윗녘을 상방리, 아랫녘을 하방리, 단양천 건너를 중방리로 한 이곳 지형을 열심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상방리 일부만 남겨 둔 채 폐허로 변해버린 이곳 지형은 몸으로 읽어 가면 갈수록 그 무상함이 무겁게 가슴에 내려앉았다. 지난번 산길을 조사하면서 확인했고 오늘도 이곳 지형을 답사하면서 확인한 사실이지만 이곳 지형은 자연스럽게 지형과 지세를 따라 자리한 집터와 텃밭 그리고 길에 어우러진 고을의 모습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헤아려 다듬고 정리한 주거지와 택지 그리고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옛 도로의 흔적들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전자의 경우 일제강점기까지 전해오던 조선시대 단양의 모습, 그 속에 퇴계 이항이 이곳에 머물렀던 시절의 단양 읍치 모습이 간직된 본원적인 도시패턴이라고 한다면 후자의 것은 근대화된 단양읍, 인공적인 기술로 변화된 모습이 드러난 단성면이었다. 심지어 늦재를 중심으로 새로 쌓은 제방을 향한 네 가닥 길만 보아도 이와 유사한 변화의 흔적은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가운데 5번 국도와 연결된 향교 앞길과 늦재에서 단성중학교 앞을 지나 신우화교를 건너 중방리로 가는 36번 국도는 근자에 새로 만든 길이었으므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중심부에 자리한 두 가닥 길 중 남쪽 길이 문제였다. 이 길은 원래 실개천이었다. 성재산과 두악산 자락이 만나는 경계선, 작은 계곡에 단양천으로 흘러내린 샘물이 만들어낸 실개천이었다. 두악산의 거센 흐름도 이 작은 실개천을 너머설수 없었음인지 급하게 멈춰선 탓에 이 개천을 경계로 상방리 땅은 자연스럽게 턱이 지어져 둘로 나누어지게 되었다. 현대 누군가가 이 개천을 콘크리트로 복개하여 길을 내었던 것이다. 편리성을 고려한 개천 복개로 밋밋한 골목으로 변해버린 실개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범속한 토목기술이 이들을 급속히 제거해 내고 있었다. 이곳의 자연과 역사경관을 외면한 채 획일화된 잣



(그림 1) 문제의 네 가닥길 단양읍 1/5000



(그림 2) 네 가닥 길의 모습

대로 공공을 앞세워 이렇듯 단양이란 도시의 장소성을 잠식해간 사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 안 되어 충주댐이 담수를 앞두고 돈돌마에서 성재산 당재 입구까지 줄을 굿듯 독을 쌓아 하방리 거의 대부분을 싹둑 잘라낸 것이다. 이와 같이 변화된 지형을 수차례 직접 확인하고 겪고 나서야 나는 단성면은 두 가지 도시 패턴이 혼재되어 있었던 곳, 두 가지 문화적 층위가 서로 겹쳐 있는 곳, 바로 단양이란 도시공간은 장소성과 무장소성이 겹쳐있는 치열한 곳이라는 내 나름의 결론에 더 이상 스스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림 3) 복개된 살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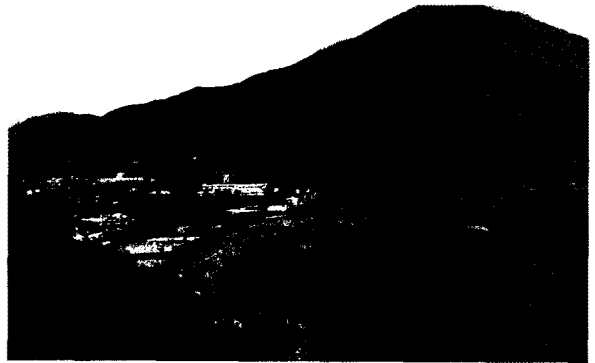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그 어색함이 질게 깔려 있는 골목길을 늦게에서 독방 길을 향해 걸어 내려 오고 있었다. 시간이 자정을 향해가고 있었다.

콘크리트로 지어진 집과 담장으로 가득한 골목길 안은 의외로 침침했다. 이따금씩 흐릿한 형광등빛이 제각기 시선을 달리하여 열린 대문과 담장 너머로 흘러나왔으나 골목길의 어둠을 사르기에 너무 미약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 둘씩 방불 마저 꼬자 침잠함은 한층 더 해갔다. 그럴수록 동네는 더욱 고요해져 갔다. 그러나 이런 한겨울밤의 적막함을 갈기갈기 찢고 나간 것은 두악산 자락을 타고 내려온 바람이었다. 그 바람은 골목에 접어들면서 불빛마저 밀어내며 음산하고 괴기스러운 소리들을 뿌려대면서 달음박질하고 있었다. 땅을 훑고 달려온 그 소리에는 흥수에 쓸려가는 아이울음소리,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비명소리, 짐승의 신음소리, 사라진 고향을 향한 흐느낌, 운동장에서 울려오는 아이들의 함성...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한 이백 여보 내려왔을까. 골목 안 왼편 언덕에 서있는 삼백년 남짓해 보이는 고목나무에도 문득 이런 냉기가 서려 있는 듯 했고 골목 안 전등불빛이 사그라지는 만큼 추위는 기세를 올렸다.

추위에 민감한 것은 온도계의 수은주만이 아니었다. 약간만 추위도 사르르 찬바람이 바지가랑이를 파고들어 허벅지를 감돌았고 더 심해지면 등줄기를 타고 올라 시리다 못해 아려오는 통증으로 온몸을 죄어들었다. 그럴 때 마다 나는 숨을 한껏 들이켜 한곳을 향해 길게 내뿜었다. 또 그럴 때 마다 사르러져 가던 몸의 열기가 다시 살아 오르는 듯 훈기가 돌기 시작했다. 열기가 일어남은 동시에 통증도 사라짐을 의미했다. 그래, 열기가 일어 내 몸 속에 생명의 불꽃이 피어나듯 그렇게, 그렇게 끝없이 일어서는 것이 생명의 법칙이 아닌가, 긴 호흡만 있어도 내 몸 안에 있는 생명의 불꽃은 끝없이 타오를 것이다. 그 생명의 불씨는, 설사 일시적인 악조건이 닥친다 해도, 내 몸 속에서 그 열기를 지켜나갈 것이다. 마찬가지로 역사유적도 설사 이 시대의 모든 것이, 내가 살아 숨 쉬고 있는 작은 공간마저도 황폐되어지고 일그러진 채 거친 인공의 모습으로 변해간다 하더라도 시간을 품고 있는 삶의 불씨임은 분명했다. 그리하여 빨갛고 산소만 공급되면 언제 어느 때나 불길을 일으키는 불씨처럼 삶의 흔적과 유적은 실증이라는 논리가 공급되기 시작하 기만 하면 끊임없이 잃어버린 과거를, 사라진 시간과 공간과 장소



(그림 4) 1987년 수제시 단성면 1/5000



(그림 5) 단성면 현재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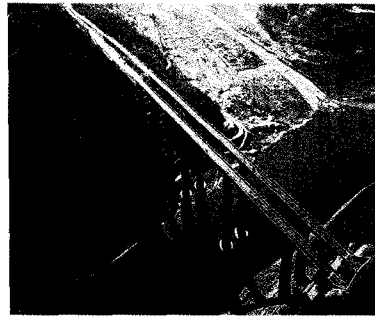
의 의미를 복원해내는 불씨로 이글거리며 타오르지 않던가. 그러나 불씨는 빨갛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한층의 재로 소멸되고 말기 때문에 화학적 변화를 야기 시키는 수동적인 촉매에 불과했다. 하지만 삶을 담은 공간의 역사는 좀 달랐다. 그것은 생명처럼 능동적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생명이 항상 자신의 행위로 주변 모든 것을 새로움의 연속으로 만들어 왔듯이 끝없이 타오르는 불꽃처럼 열정적으로, 흐르는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며 스스로 오늘의 밑그림이 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유적 하나 하나마다 숨어있는 불길 같은 생명의 열정과 그 속에 깃들여 있는 물길 같은 인간의 법칙을 읽어 낼 때 마다 역사는 물 한 방울이 끝내 자신의 모습 그대로 바다에 이르는 것처럼 우리를 마침내 시간의 바다에 당도케 해왔고 또 그렇게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라는 기대감과 희망을 갖게 하지 않았던가. 그 바다에서 꿈을 낚는 나그네에 불과한 우리에게 의미로 가득한 세계를, 장(場)을 안겨 주지 않겠는가.

그런 까닭에 이제 역사는 더 이상 박물관의 박제된 전시물목이 아니라 바로 나를 나로써 존재케 하는 생명의 불꽃으로 자신의 실체를 공간 속에 드러내야 한다. 하지만 1985년 충주댐 담수로 단성면으로 변한 옛 단양은 답사 초장부터 도시의 연결고리인 도로의 흔적마저 모두 끊어지고 지워져 자취가 묘연하기만 했다. 눈앞에 옛 도시 단양의 흔적이라고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주의를 끄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주목할 만한 것이 남아 있지 않다는 공허함뿐이었다. 불과 삼십년 전만해도 사람들은 이곳의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었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옛 것을 보지도 듣지도 경험하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장소의 변화

가 주는 시간과 공간의 단절이었다. 원인은 물론 공공의 이름으로 단양이란 도시가 물에 잠기면서 이곳 사람들이 모두 신 단양과 외지로 이주하고 원래 이름마저도 단성면으로 바꾸었기 때문이었다. 결과 남겨진 것이라곤 고작 하방리와 상방리 주거지 일부, 지금 눈에 들어오는 이곳이 전부였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1994년 지도와 1987년 지도, 모두 홍수 때 자료를 수집 편집한 두 장의 지도가 당시 홍수위를 통해 지형의 수평 변이 점을 확인 시켜 주는 바람에 그나마 변화의 폭을 가늠할 수 있게 된 점이었다. 1994년의 홍수 수위는 대략 130m 정도였으므로 가장 낮은 지역이 128m인 단양이란 도시는 하방리가 물에 잠긴 정도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7년의 것은 대략 140m 정도였으므로 충주댐 상시만수위인 141m인 점을 감안해본다면 옛 단양이란 도시를 완전히 삼켜버린 물이 새로 쌓은 제방 턱을 넘어 흘러들어가 그나마 표고높이 140m 이상 산록에 남아 있던 상방리 일부 주거지마저 위협할 수준이었다.

충주댐을 조성한 토목기술로 이곳에 있었던 단양이란 도시는 수몰되어 사라지고 없다. 그 도시의 사라짐은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왔던 사람들이 애착을 가지고 일궈낸 터에 대한 친밀함과 배려와 관심을 한순간에 뿌리채 뽑아냄을 의미했다. 가상의 선(善)에 불과한 공공의 선은 이렇게 소중함을 통하여 세상과 관계를 맺는 민초들의 삶의 기초를 허물고 있었다. 사라진 장소성은 단지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슴속에 추억으로 기억에 남아 있을 뿐이다. 그나마 그것도 머지않아 박제된 기록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 것이다. 거대한 공공의 선으로 등장한 공룡 같은 충주댐 담수로 제일 먼저 찾아온 물리적인 변화는 조상대대로 이용했던 단양의 물길이었고 눈에 보이는 제일 큰 변화는 수변 접근성이었다. 단양천, 이것과 깊은 관계를 지녔을 산길, 만약 그것들의 연관성을 찾아 낼 수만 있다면... 이런 도시중심부에 수변 교통로를 지닌 단양 읍내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과연 그 속에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터에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진정한 삶의 터를 만들어온 모습은, 아니 그에 관한 약간의 힌트만이라도 찾아낼 수 있는 없는 것일까. 내가 앞으로 살아갈 곳이라면 누구라도 그것이 의미 있는 장소와 인연을 맺고 싶은 것이 사람의 뿌리 깊은 욕구가 아닌가. 하다못해 이름 없는 풀도 심지어 잡초까지도 모두 자신의 터를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사는 마당에 그마저도 없는 것은 정작 사람이었다. 이런 나의 욕구를 무시하고 기술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획일화 된 공간과 장소에 내 스스로를 주조(主潮)시킬 것을 강요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 미미한 존재에 불과한 내가 감히 도전장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외적인 것을 항상 일상적인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권력에 현실은 예속되어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언젠가 나의 삶을 담아줄 최소한의 공간과 장소마저 용납하지 않을 것이 불 보듯 뻔했다. 우선 내일 아침부터 당장 내가 찾아나서야 할 곳은 사라진 산과 물의 도시 단양의 수몰 현장이었고 그곳을 답사하며 그것의 옛 모습을 재구성해 내고 그 행간 속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내는 일이다. 밤하늘의 별발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듯 했다. 교묘한 달빛이 새로 만든 우화교 건너 상방리 돈돌미 계곡 새밭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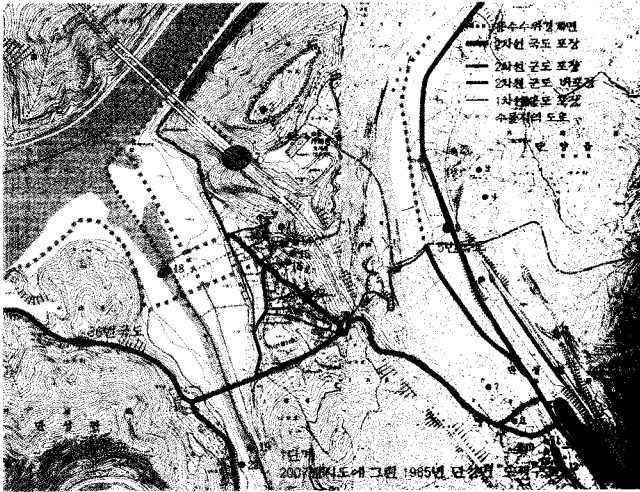
길은 산길에서 시작하여 도로로 매듭을 지었다. 산길이 모든 길의 뿌리였기 때문이다.



(그림 6) 갈수기, 단성면

잠에서 깨어보니 신 새벽이었다. 토마루로 난 장지문이 희미하게 밝아와서 문을 열어보니 앞마당에 겹겹이 숙무(宿霧)가 그득했다. 밤늦은 시각에도 불구하고 방에 군불을 지펴준 안주인에게 고맙다는 아침인사라도 할까 했으나 인기척이 없어 마음을 고쳐먹고 숙소를 나와 서릿바람 속으로 길을 나서고 말았다. 차를 숙소에 버려두고 잔걸음으로 늦재를 너머 우화교를 건너 우측 길로 방향을 틀자 아직도 이른 아침이었다. 모퉁이 밥집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중방리 들녘으로 내려섰다. 낮게 깔린 아침햇살에 반사된 거무칙칙한 빨밭이 한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그 빨밭은 마치 누가 초콜릿 크림을 발라가며 판판하게 두드려 덧대어 손질이라도 한 듯 이곳 지세를 자연 경사 그대로 두텁게 드러냈다. 간혹 일직선으로 뻗어간 도로의 흔적은 서로 아귀를 맞춰가며 빨밭 사이에 모습을 드러냈고 질펀하게 펼쳐진 빨밭 사이로 뚫린 길가에 실한 느낌 하나 없는 건물 기초와 바닥, 계단의 콘크리트 잔재들이 등성등성 남아 있었다. 마른 갈대줄기와 잡목으로 가득한 빨밭 여기저기에 땅깍질이 얼어 부풀어 오르며 들뜬 얼음장들이 창백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냉기 가득한 하방리 빨밭에 눈을 담고 있던 나는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망연히 떠올랐다. 단양이란 도시는 강 하구에 자리한 까닭에 도시를 구성하는 통로, 도로는 산길과 물길이 한데 어우러지며 발달해 온 것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그 접점을 찾아내는 일이 단양이란 도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찾아내는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점이였다. 이유는 물론 인위적인 것들이 가변성이 큰 것임에 반하여 자연적인 것은 영속적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속에 자연적으로 동화된 퇴계 이황의 자취가 많이 남아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그 흔적을 찾아내기 힘든 것이다. 그래도 혹시 단양천을 조사하며 시대를 거슬러 올라간다면... 항공사진을 본다면... 이 일이 가능한 것 아닐까. 아니 단순히 그가 능성만 확인한다면 구태여 그렇게 복잡하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방리만 뒤져보더라도 이 추측을 뒷받침해줄 만한 근거는 많았다. 그런 점에서 이런 가정과 시도는 나름대로 충분한 가능성과 타당성을 갖고 있었다.

우선 산길의 흐름을 조사해보면 상방리는 중방리와 하방리보다 가장 험하고 깊은 두악산 남쪽 자락을 의지하고 마을이 펼쳐진 까닭에 구 단양에서 마을의 시점이 제일 높은 해발 132.2m 능선 위에 자리했다. 여기서 산자락을 따라 서향으로 늘어 올라선 이 마을은 그나마 좁은 평지나 경사가 덜 급한 비탈만 있어도 사람들은 밭을 일구었고 밭과 밭 사이 두렁을 내었으므로 길은 마을에서 산으로 이어졌다. 산길이 마을길로 진화해가는 과정이 가장 뚜렷이 남아 있는 상방리, 밭두렁 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두악산 정상으로



(그림 7) 옛 단양읍 도로 흔적 찾기

꼬리를 감춘 산길은 산경사가 가파르면 완만한 호흡을 찾아 산자락을 돌아 고갯마루를 찾아갔다. 단양읍을 질러온 5번국도가 늦재를 채 번어나기도 전에 단성파출소 앞에 서면 산으로 오르는 길이 한눈에 들어왔다. 또 다른 가닥인 단성중학교 그리고 돈돌미에서 두악산 정상으로 향해 오르는 길도 마찬가지로였다. 아무튼 세 가닥 산길은 조금이라도 경사가 완만해지면 지름길을 찾아 곧바로 산세를 거슬러 질러 오르는 공통점이 있었다. 그러다가도 조금이라도 산세가 급해지면 완만한 곳을 찾아 길을 돌아가는 산길의 원리는 한결같았다. 이렇게 산길과 마을이 이어지는 발두령 길을 따라 산을 오르면 두악산 중턱이 가지를 활짝 벌린 소나무 숲 사이로 이리저리 떠올랐다가 사라졌고 두둥실 떠 올랐다가 사라졌고 했다. 그런 탓인지 그 길을 걷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잦은 머리, 중머리, 중중머리, 휘머리를 지닌 사나위 가락을 타는 것 같았다. 호흡은 길 따라 거칠게 휘몰아쳤고 완만해지면 심장이 터질 듯 몰아지면 호흡도 잦아들었으므로 사람들은 산길을 걸으면서 산의 호흡에 자신을 맞춘다고 했다. 평소 무심코 들었던 그 소리가, 오늘 따라 택리지에도 없는 이 말이 제법 그럴싸하게 느껴졌다. 지금 콘크리트 포장 일차선 도로인 이 길을 따라 단양군청 자리(현재 파크호텔)를 뒤로하고 배불데기를 지나 이십 여분 차도를 따라 걸어 오르면 단봉암 갈림길이 나올 것이다. 그곳에서 왼편으로 가파른 산길을 잡아 오르면 두악산 정상으로 향한 산 오름이고 오른편 평지 길을 택하면 단봉암길이다. 단봉암에서 삼십여 분 좁은 산길을 걷다가 살구나무 맥이에서 왼편산자락 길을 치고 오르면 두악산 정상으로 가게 된다. 늦재에서 단봉암 삼거리까지 원래 발두령 길이었다는 이 길은 1980년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산길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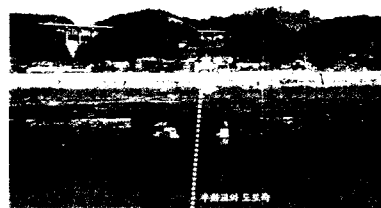
이제 산길은 전국토의 80%가 산인 우리나라에서만 모든 길의 원형이자 뿌리였다. 그래서 산은 이러한 문화 콘텐츠의 원형을 저장하고 있는 문화 은행이었고 산길은 태곳적 단양이란 도시 모습을 찾아가는 시간의 문이라 해도 과언은 아닌 셈이다.

한데 이 길이 상방리 마을 가까이 내려오면서 늦재 근처 해발 185미터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발두령을 따라 요리저리 꼬불거리는 길에 사람들의 발 때가 묻게 되자 넓어지고 다듬어졌다. 그것이 해발 160미터 정도로 내려오면 골목길로 변했고 비탈에 선 경작

지는 텃밭으로 공터로 변해 갔다. 이제 길은 더 이상 논두렁 발두령 길이나 대문과 대문을 잇는, 집과 집을 잇는 골목길로 변하면서 거의 등고선을 따라 이어졌고 등고선과 등고선을 잇는 경사진 곳에 계단과 램프로 연결된 골목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런 산자락이 해발 150미터에 이르면서부터 경사가 더 완만해지게 되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해지면서 산자락 경사를 가로 지르는 또 다른 길이 엮대어져 격자를 이루면서 여태껏 보아왔던 외줄기 산길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와 매무새로 길과 길의 관계를 드러냈다. 늦재에서 하방리로 이어진 세 가닥 길은 모두 한결 같이 우화교 방향으로 꼬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 길들은 과거 언젠가 모두 우화교와 연결된 길이었을지도 모른다. 놀라운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성재산 당재 길과 하진리 물길, 늦재길과 중방리를 연결하는 우화교 길, 상방리에서 돈돌미를 지나 삼선암으로 가는 길, 이들은 모두 각각의 절점을 짝을 지어 이으면 최단거리였다는 점이다. 걸음으로 이루어진 감각과 경험이 측량의 범위를 넘어선 까닭이다.

산길의 변화, 그 속에 이곳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배어 있었다. 그들이 공들이고 일귀온 산비탈의 밭, 그 밭을 경계 짓는 발두령 길 그 위에 수없이 얼룩진 농민의 밭걸음과 땀, 이들이 그들만의 삶을 구별 지어낼 수 있는 기준이기도 했다. 이렇게 스스로 삶을 의미 있는 터로 조성하고 뿌리를 내리며 공동체를 형성해온 사람들이 상방리 사람들이었다. 상방리는 이러한 훈이 깃든 곳이기도 했다.

퇴계 이황은 우화교를 건너지 않았다. 그가 말을 타고 건너온 곳은 나들목이었고 우화교의 뿌리이자 단양사람들 삶의 중심이었다



(그림 8) 중방리에서 본 우화교 유적

나는 지금 이렇게 자연의 일부로 되어버린 패턴을 지닌 산길과 물길 그리고 개울 나들목의 이음새를, 양력과 음력의 차이와 함께 우화교 교각 잔해 위에서서 제일교회를 바라보며 생각하고 있었다. 사회가 산업화 대중화 될수록 양력을 사용해야 하는 기세가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양력으로 세상을 돌아본다는 것은 하루 일의 정리에 대한 기능적인 효율성에 대한 근시안적인 집착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창자가 비비꼬이는 것을 느끼게 했으나 추세가 추세인 만큼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나 개인뿐 만 아니라 정부 역시 해마다 벌린 저울질이었고 계산이었다. 어느 것이 더 근수가 나갈 것이며 어느 쪽을 써야 잇속이 있을 것인지를 따져야 할 정부로서는 별것 아닐 수 있는 이 작은 문제를 결론지어야 할 그야말로 중대한 시점에 처해진 셈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저울 눈금이 아무리 저울질 해보았자 물건을 달 때 처럼 속 시원하게 딱 정해지지 않는데 있었다. 양력을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듯하여 그쪽으로 쏠리면 다음 순간 음력 구정이 민속명절이라 더 정취가 있는 듯했고, 해마다 저울눈금이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도무지 종잡을 수 없었다. 당장 세상판에 돌아가는 것으로

보아 양력이 근수가 더 나가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음력은 당장은 식은 보리밥 신세에 불과한 듯 했지만 역사라는 바닥에 오래 남아 있기로 치자면 양력보다 근수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더나가는 것은 분명했다. 또 음력을 사용한 시대의 이야기를 양력으로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었다.

이제 달포만 지나면 정월 대보름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남한강은 여기저기 군데군데 얼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팡팡 얼기 시작했고 단양천도 덩달아 팡팡 얼어 올랐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물소리는 죽어갔다. 이처럼 천지간에 물소리가 끊기는 것은 여름 가뭄하고 일 년 한 해 동안 딱 두 번 있는 셈이다. 마을 아이들은 중방다리라고 불렀던 이 다리 아래에서 얼음 배를 만들어 뱃놀이를 했고 대보름이 되면 망우리 돌리기(쥐불놀이)를 했다. 아무리 겨울 추위가 매섭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방구들을 차고 있지만 않았다. 강바람을 헤치며 한사코 얼어붙은 강가로 나왔다. 하루 원 종일 강가에 붙어살았던 아이들에게 강 얼음이 한창인 남한강과 단양천변은 그나마 한 겨울의 지루함을 달래줄 그들만의 스릴과 놀이가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투어 팡팡, 얼어붙은 얼음을 가로 세로 대충 3~4미터 크기로 자른 다음, 그 위에 올라탔다. 그리고, 마치 노라도 젓듯 작대기를 노 삼아 저으면서 그 차갑고 깊은 단양천변을 나름대로 이리저리 오르락 내리락 하며 꽤나 위험스런 뱃사공 놀이를 하곤 했다. 그러나 뱃사공의 위엄을 뽐내기엔 강바람이 워낙, 추웠으므로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얼음배위에 잔술가지를 잔뜩 쌓아 놓고 불을 지폈다. 그리고 그 타오르는 불속에 하나 같이 몰래 집에서 가져온 감자며 고구마를 가끔은 잡아온 개구리를 구워 먹으며 삼삼오오 둘러앉아 몰래 숨겨온 술찌꺼기며 소주를 마시곤 했다. 얼음위에 지퍼놓은 장작불, 입안에서 술술 녹아들어 가다 삼키면 삼킬수록 뜨거운 맛을 더해가는 노릿노릿 구워진 고구마와 감자, 남볼래 마시는 소주 맛, 이 모든 것이 대조적인 것들이 어우러진 얼음배 놀이는 소년들에게는 환상적이리 만큼 스릴 넘치고 순수한 시골 서정이 깃들여진 겨울놀이이었다. 시간이 갈수록 아이들의 입 언저리에 숯가루를 바른 듯 타다만 고구마와 감자껍질에서 묻은 까만 가루가 얼굴전체로 얼룩지며 퍼져 갔다. 아이들은 숨 막히도록 불어오는 그 어지러운 겨울 강바람을 얼어붙은 몸을 구부린 채 초점 잡히지 않는 눈으로 별경계 달아오른 얼굴을 서로 바라보며 웃곤 했다. 어지러운 강바람 속에서 흔들거리는 얼음 배를 아이들이 강가로 옮겨 놓을 생각이 들 즈음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미 그 배는 녹아내려 아무리 힘껏, 필사적으로 배를 강가로 몰아가려해도 결국 깨지고 말아 대부분 아이들은 그 차가운 강물 속에 빠지지가 일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깊िका지 물에 빠지면서도 서로, 쳐다보며 박장대소를 하며 강가로 나오는 것이 이곳 아이들이었다. 팡팡 얼어 젖은 옷을 말리지 않고 그냥, 집으로 갔다가는 십중팔구 화가 난 아버지는 지게 작대기로 엄마는 다듬이 방망이질을 아이들에게 해대기 마련이었다. 그래서 있는 힘껏 두들겨 맞을지도 모를 두려움에 햇살 두터운 우화교 주변에 쭈그리고 앉아 다시 화투불을 지피고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훌쩍 벗고 아이들은 옷을 말리는데 반해 이곳 꼬마들의 얼음배 놀이는 좀 달랐다. 냇가에서 겨우 내내 얼음 타기 놀이를 하던 꼬맹이들도 서서히 녹을 즈음 두꺼운 얼음 가운데에 구멍을 낸 후 길고

통통한 막대로 노를 만든 다음 얼음 배를 만들어 타고 편을 갈라상대편의 배를 부수는 치열한 해상전을 치르는 놀이를 했다. 이 전쟁의 종말은 상대방의 배가 부서져야 끝이 났으므로 물에 빠진 패잔병은 비참하게 옷이 모두 젖어 추위에 벌벌 떨며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아무리 추위도 단양천 우화교 근처에 모인 아이들의 얼음배 놀이는 한겨울이 다가도록 지칠 줄 몰랐다. 얼어붙은 강은 강대로 빙판이 되었고 가을걷이가 끝낸 넓은 중방리 논은 논대로 상방리 밭은 밭대로 누구네 논밭 구별 없이 온통 비어 있었으니 이곳 아이들에게 그만한 겨울 놀이터가 따로 없었다.

그러다가 음력 정월에 가까워지면 어느덧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는 입춘을 맞이하면서 남한강 얼음이 풀리기 시작하면 단양천은 소리 내어 흐르기 시작했다. 이제 겨울 잠자던 벌레들이 깨어나기 시작할 즈음 사람들은 해마다 대문 기둥이나 대들보 혹은 천장에 '입춘대길(立春大吉: 입춘을 맞이하여 좋은 일이 많이 생길라는 뜻)'이라고 써 붙였다. 상방리 농가에서는 보리뿌리를 뽑아 보고 그해 농사가 잘 될지 어떨지를 점치기도 했다. 한해가 시작되는 정월이 보름을 지나게 되면 음력 정월 대보름이다. 달마다 보름의 있으나 그날만은 이곳 사람들은 우화교 위에 보름달이 두둥실 떠오르면 쥐불놀이와 달집을 태워가며 달맞이하며 소원을 빌기도 하고, 달빛에 따라 일년 농사를 미리 점치는 일들이 총각들의 돌싸움과 처녀들의 지신밧기로 이어졌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인지 쥐를 쫓는다고 논둑이나 밭둑에 놓는 불을 놓아 먼저 끈 동네의 쥐가 진 동네로 몰려간다는 쥐불놀이가 강통 돌리기로 바뀐 것이다. 성급한 아이들은 보름을 이삼일 앞두고 대낮부터 불붙은 강통을 방글방글 돌려대기 시작했다. 그 강통은 분유통 정도면 적당한 크기였는데 철 강통에다가 망치하나로 수많은 못 구멍을 강통 밑면과 옆면 아랫부분에 여러 개 뚫고 옆면 윗부분에도 몇 개 뚫은 간단한 구조였다. 현대 강통에 구멍을 많이 뚫으면 뚫을수록 돌릴 때 바람이 많이 들어와 쥐불통에 숯에 불이 잘 붙었다. 강통과 연결된 철사 줄은 강통에 손을 내렸을 때 강통이 바닥에 약간 끌릴 정도가 좋았다. 그리고 강통 안에 들어가는 숯은 불쏘시개를 밑에 깔고 나무를 적당한 크기 잘라 불을 붙인 다음 자연스럽게 강통에 들어갈 정도로 부지깅이로 깨어 넣어 약간의 불기 있는 숯을 넣고 돌리면 불은 붙어 올랐고 세계 돌리면 돌릴수록 확확 소리를 내며 빨간 동그라미가 밤하늘을 선명하게 수놓았다. 달을 향해 환을 지어 일어서는 수많은 불꽃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참여하는 달의 잔치이자 불의 축제였다. 그래서 우화교의 정월 대 보름 불놀이는 지신을 밝은 처녀들이 땅의 음기와 달맞이로 달의 음기를 흡신 받아 임신을 했다하면 모두 모두 힘을 쓰는 아들 낳기 바라는 염원으로 이어졌고 한해의 농사가 풍년 되기를 바라는 기도로 매듭이 지어졌다.



(그림 9) 1985년 단양읍 철거와 우화교

이렇게 기울어져간 겨울은 절기의 신비로운 번갈기로 한 꺼풀씩 얽여져 갈 것이다. 이런 절기의 변화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나 그 따뜻한 습결의 변화를 맨 먼저 깨닫

는 것은 땅이었고 살아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은 지기(地氣)에 목숨 줄을 대고 있는 나무였다. 옛날부터 “우수 경칩이 되면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말처럼 우수(雨水)를 지나면서 눈은 비가 되어 내렸고 얼음이 녹기 시작하자 개울 물소리와 함께 땅에 봄기운이 솟아올랐다. 음력설을 고비로 이렇게 절기가 달라졌음을 제일 먼저 간파 한 것은 우화교 다리 왼편 개울가에 자리 잡고 있는 아름다리 고목이었다. 그 나무는 자연의 변화를 신기할 정도로 잘 드러냈다. 비록 속이 모두 불에 타 텅텅 비어 말라 죽어 있어도 이듬해 입춘이 지나면 어김없이 잔가지에 움이 트기 시작했다. 경칩이 지나면서 해묵은 가지가지 사이사이로 피어오르는 예외 없는 새잎의 푸르름은 정말 경이로웠다. 처연한 생명의 아름다움에 놀란 것은 이곳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은 영혼을 벗 삼아 살아가는 무속인들 까지 찾아와 제를 지낼 정도였다. 그러나 철없는 아이들에게 고목 등걸이온 전쟁놀이의 진지로 더욱 인기가 있었다.

보름이 지나면서 완연해진 봄기운과 함께 새해의 발돋움의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얼었던 강물이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했다. 그럴 때면 우화교 근처에 사람들의 발길이 잦아들었고 마을사람들 가운데 견지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들은 주로 다리 위쪽과 한참 아랫녘 남한강 합수머리에 바늘을 흘렸는데 주로 다리 위쪽에선 아이들이 물속 돌 밑에 있는 꼬내와 흔하디흔한 파리를 미끼로 쉬리와 피라미를, 남한강에선 어른들이 잠자리와 메뚜기를 미끼로 강피리와 마자를 낚았다. 읍내 장날이면 마을 어른들은 팔 길이만한 물고기를 새끼줄에 주렁주렁 주둥이를 꿰어 어깨에 둘러매고 시장에 내다팔곤 했다. 아이들이 잉어인 줄로만 알았던 그 고기는 누치였다. 그 당시엔 누치란 어종을 아이들이 몰랐던 탓도 있었지만 코 흘리기들에겐 그저 커다란 물고기는 모두 다 잉어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단양천과 우화교는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양 사람들의 삶과 추억이 깃든 광범위한 사

적(私的)인 시간의 구조가 깃든 장소였다. 그들은 아직도 우화교가 있는 단양천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 꿈에서 깨어날 때 마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기억들이 세찬 바람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쇠북소리 같은 산울림처럼 북바쳐 올라 가슴을 울려 가슴을 치는 애달픔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기도 했다. 단양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그것이 이맘때만 들리는 산울림과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곳은 단양사람들의 마음속에 옛부터 오랫동안 자리해온 곳이기도 했다.

찌름 또 산이 울었다.

하지만 아무리 소백산줄기에 뿌리를 둔 두악산 줄기가 길고 골이 깊다 하더라도 그 계곡을 타고 들려오는 그 둔중하고 긴 파장의 산울림은 누구에게나 들리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머지않아 봄기운이 천지사방으로 퍼져나가 들불이 될 것이다, 절기의 변화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구름처럼 피어오른 실낱같은 궁금정은 대체 교각만 앙상하게 남아 있는 우화교 이 다리가 이곳에 처음으로 놓여진 것은 언제쯤이었을까 하는 점이였다. 퇴계 이황선생이 이곳 현감으로 부임할 1548년 정월, 그는 과연 이 다리를 건넌을까. 신작로 까지 넘쳐오른 햇살을 밟으면서 이 생각에 몰두한 나는 뭔가 확인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쫓겨 걷기에만 열중했다. 신작로에 박힌 돌에나 길가의 마른 풀에는 서릿발이 하얗게 돌아 있었다. 겨울이 밀려가고 있었으나 안개는 신작로와 단양천을 따라 허물어 내린 방죽에 갇힌 듯 강바닥에서 올라와 중도리 들판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멀리 아슴하게 넓은 안개 밭 속에서 금을 그어놓은 듯 새로 놓은 우화교가 드러나 보인다. 들판에 끼인 안개는 겹겹이 쌓이면서 다리교각을 향해 묵직하게 피어올랐다. 비감함으로 가득한 이곳에 왜 수물기념관을 지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8각 모임지붕의 콘크리트 한옥 이층 건물인 단양군 수물이주기념관 앞마당에는 4개의 유물이 옮겨져 있었다. 대부분 암각자가 새겨진 돌덩이였는데 그중 하나가 충



〈그림 11〉 폐허가 된 중방리

청북도 유형문화재 80호인 우화교 신사비(羽化橋 新事碑)였다. 높이114.5cm 폭 58cm 두께16cm인 이 비가 바로 조선 영조 29년(1753) 단양 군수 이기종이 단양천에 우화교라는 돌다리를 놓고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다리 옆에 세운 신사비였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이 자그마한 비석 후면은 상당부분 마모 되어 육안으로 판독 불가능한 글자도 여럿 있으나 다리를 설치했던 건립년도는 1753년이었고 당시 참여한 사람과 목수 토수 석수의 이름까지 암각되어 있다. 경상도에서 죽령을 넘어 서울로 통하던 중요한 교량이었던 이 다리 위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울창한 숲이 우거진 두악산과 금수산 줄기를 받은 말목산이 바라보이고 깊고 맑은 단양천 위에



〈그림 10〉 옛 우화교 신사비 1754년 제작

비친 다리를 건너는 것이 마치 신선이 하늘로 가는 관문을 통과하는 것과 같아 사람들은 자신이 신선이 된 듯 착각한다고 해서 우화교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다리는 퇴계 이황이 이곳 현감으로 부임한 지 약 이백 여년이 지난 뒤에 지어진 교량이었다. 퇴계 이황이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이곳 우화교 터는 나들목에 불과했다. 그는 말을 타고 우화교가 있던 자리의 단양천을 건넌음이 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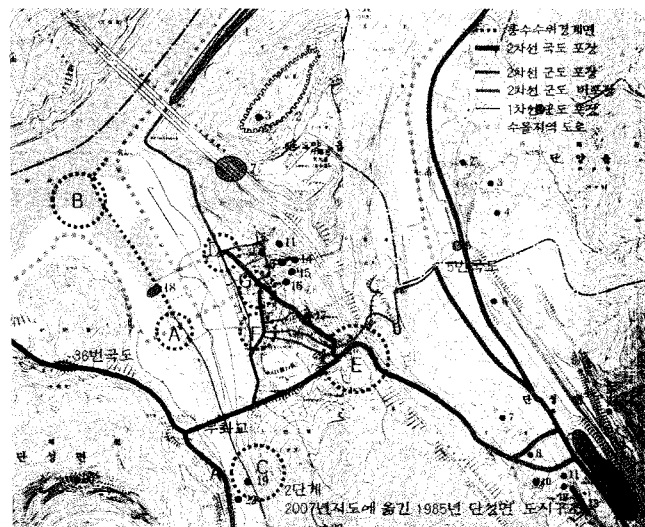
### 상방리 나들목 답사

그동안 수수께끼처럼 베일에 싸였던 우화교에 대한 궁금함이 벗겨졌으므로 이제 해야 할 일이 좀 더 선명해졌다. 당장 손댈 일은 폐허가 된 단성면내에서 산길과 연계된 단양읍 내부 도로 모습을 밝혀줄 불씨를 찾아내는 일이다. 만약 그것이 퇴계 이황이 현감으로 있었던 옛 단양이란 도시의 분포를 밝혀낼 표준사료를 확보하는 지름길일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는가. 우선 남한강 물길과 관계 깊은 곳이라면...나루와 포구를 말했다. 또 산길과 상방리와 하방리 그리고 중방리를, 중방리와 상방리를 서로 연결했던 통로였다면 단양천에 있었던 개울 나들목을 말했다. 과연 물류와 사람들이 드나들었을 단양읍의 포구는 대체 어디란 말인가. 또 조선 후기 이후로 중방리와 상하방리에서 왕래가 필요했던 사람들은 우화교 하나만으로 충분했을까... 더 거슬러 올라가 퇴계 이황의 시대 이곳 사람들은 하나의 나들목으로 족했던 것일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단양군 수물이주기념관 앞마당에 있는 4개의 유물 가운데 3개의 암각자가 새겨진 돌덩이만 보아도 그랬다. 또 하방리와 상방리 단양천에 쌓은 이천 여보에 가까운 제방 흔적만 보더라도 분명 여러 곳이었을 가능성은 충분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개울 나들목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이것을 향한 수많은 궁금증이 출발처럼 일어섰다. 그러나 아무튼 한 가지 명확해진 사실은 읍내부 도로 네트워크를 찾는 일은 포구와 개울 나들목을 찾아내는 일에서 비롯될 거라는 점이었다. 나들목은 걷는 시대 Walking Distance가 중요했던 시절, 지천이 발달했던 우리나라 마을과 도시구조를 밝히는데 필요한 중요한 유적이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성과를 미루어 짐작컨대 단양천의 여러 나들목 가운데 유일하게 다리가 놓여진 우화교는 수레와 우마차를 이용한 물류이동로였을 것이다. 만약,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본다면 나룻터와 포구 그리고 개울 나들목을 찾아내어 산길과 연계성을 밝히는 일은 우리선조들이 강을 따라 이동하고 내를 건너 산길로 이어진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도시를 만들어온 뿌리를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더구나 읍내부도로의 원초적인 형태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이제 단양이란 수물도시는 폐허에 불과했으나 기억속의 그곳은 이런 것들이 숨쉬고 있는 엄밀한 유기체로서 살아있는 도시임이 확실했다. 그 실마리를 찾아내려면 먼저 단양천과 개울 나들목을 함께 조사하여 도시의 맥을 잡은 다음 남한강 수로와 포구를 조사하여 내용을 보완하여 종합 결론을 내리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서둘러야 할 일은 변화의 중심지인 상방리와 하방리를 답사하는 것 보다 갈수기 단양천을 직접 걸으면서 중방리에서 상방리

를 바라보며 두 곳을 잇는 개울 나들목을 조사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는 편이 더 쉽고 합리적인 접근법이 아닐까.

발걸음을 되돌려 옛 우화교 터로 다시 돌아온 나는 단양천 개울가를 따라 중방리 일명사 절터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퇴계 이황선생이 농사를 위해 만들었던 보(洑) 복도소(復道沼)를 왼편으로 바라보며 길을 잡았다. 김광대(吉光臺) 암각자가 있었던 그곳을 빠져나가자 바로 갈대가 아직도 찬 서리에 듬성듬성 젖어 있는 돈돌미 개울가에 들어섰다. 이곳은 밭새 익은 길이었으나 발걸음이 새로 지은 우화교 교각을 지나면서 바람은 더욱 거세졌다. 잊지않아 불다 남은 찬바람이 아직도 기운이 남았는지 해가 이미 동편 슬금산능선을 넘어나 남쪽 소백산 줄기 연화봉을 향해가고 있었으나 단양천가에 붙고 있는 그 바람은 여전히 차고 냉기마저 돌아 있었다. 그러나 더 차갑고 매서운 것은 차라리 계절 따라 불어오는 그 바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땅을 상대로 일으키는 땅 바람이었다. 누구나 예상하고 있었듯이 충주댐이 완성되어가자 제일 먼저 불어 닦친 바람은 땅 바람이었다. 수물지역 보상과 이주 바람, 그 바람이 차례로 단양 수물예정지역들을 휩쓸고 지나갔다. 그러나 그 바람은 사람들에게 별로 거뉘 줄만한 것들이 없었다. 충주댐이 완공되기 전에 인구가 꾸준히 줄어오던 것과 똑같은 형국이 199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 바람은 남은 사람들만이라도 새로운 곳, 신단양으로 관광바람을 앞세워 몰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바로 수물지역의 총 호구 수 5,294호



(그림 12) 단양의 도시 절점



(그림 13) 드러난 제방 흔적



26,960명 가운데 약 48%에 해당하는 2,565호 12,748명, 이주 대상 호구이자 인구였다. 충주댐 담수와 이주와 관련된 내용들이 알려지면서 턱없이 줄어들기 시작한 단양 인구는 조사결과 1978년 충주댐공사 계획이 확정된 다음부터 1986년 이주가 완료된 사이 타지로 이주한 사람들만 해도 일만 사천여명이나 되었고 수몰된 경작지는 전 경작면적의 10%나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군 당국은 쓴 입맛을 다셨을 것이다. 그전 군 재정수입의 진짜 알맹이는 다 빠져나가버렸다는 뜻인 동시에 댐과 관련된 일로 군 재정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내가 뒤늦게 놀란 일은 어떤 곳은 도시와 마을 전체가 수몰된 곳이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 대표적인 곳이 청풍과 단양 읍내이었다. 청풍이란 도시 전체가 그렇게 된 것은 충주댐과 근접해 있었던 탓이었으므로 어떤 면으로는 당연했다. 그러나 단양읍은 달랐다. 상시만수위가 141m로 설정된 까닭에 최저 표고높이 128.7m인 하방리와 최고 134.2m인 상방리가 모두 수몰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결과 단양읍내 11개리 상주인구 14,141명 가운데 65%에 해당하는 9,206명이 새로운 땅으로 이주를 해야 했다. 호수로 말하면 총 호수 2,835호 가운데 66%에 해당하는 1,861호가 물에 잠기게 된 것이다. 그들 가운데 농업관련 호수 248호를 제외한 1,613호, 87%에 해당하는 인구가 상업 공무원 회사원 기타 직업을 가진 2차 3차 산업 관련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살았던 단양읍은 인구구성 비단 보더라도 이 무렵 이미 도시화가 깊이 진행되고 있었던 곳인 셈이다. 이들은 모두 한강하구의 수해를 막기 위하여 댐을 건설해야 했던 정부 당국이 그 당시 내 걸었던 슬로건, 전력난 해소와 관광 명소 건설이라는 말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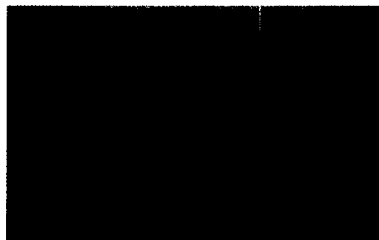
그런데 이곳 군 당국을 뒤늦게 더 놀라게 만든 것은 충주호 주변 기상 이변으로 수해발생빈도가 증가했고 남한강변의 자연경관 훼손이 심각해 진 일이었다. 갈수기(渴水期) 호수길이 32km 가운데 78%에 해당하는 25km가 건천화(乾川化)되자 빨로 변해버린 강바닥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제 남한강은 백사장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던 그런 모습의 옛날 강이 아니었다. 또 저수지와 수로로 변한 남한강은 철마다 수위조절로 단양수석이 유명했던 이곳 석벽마저 삭아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으므로 이곳을 관광명소로 한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관광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더 놀란 것은 마을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부동산 바람이 불어오기를 기대했으나 뼈뺀 이주 보상비만으로는 그 바람을 불러 일으켜 개발 이익을 챙기기는커녕 새로 이주할 곳에 집을 짓고 생업을 마련할 터전조차 마련하기에도 바빴기 때문이다. 그나마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단양이 수몰되기 이전에 단양군청과 단성중학교를 이주할 때와 같이 싼값에 논밭을 형질 변경하여 신도시를 개발할 수 있게 된 점이었다. 이점을 간파한 정부는 그 바람을 이용하여 이 지역을 새로운 관광도시로 만든다는 명분을 앞세워 사람들을 신 단양이란 도시로 몰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단양사람들이 정작 잃어버린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였고 곁에 살던 고향사람들이었다. 한마디로 그들이 지냈던 인간적인 삶은 기념비적인 관광 사업에 가려 마을 공동체의 붕괴로 나타났다. 그나마 남아 있던 진정성과 장소성마저 송두리째 사라진

것이다. 당국은 자신의 혼이 깃든 삶의 터를 팔면 관광이란 황금을 갖는다고 공공의 목적을 내세우며 목청을 돋아 떠들어댔으나 폭풍처럼 몰려와야 할 관광바람은 끝내 불지 않았다.



(그림 14) 단양천 하구 합수머리

그 사이를 흐르는 물 단양천의 공간적 성격을 이해하게 되었다. 우선 강이라고 하기엔 폭이 작은 이 물줄기는 개울이라고 하기엔 너무 컸다. 하지만 이곳으로 황정산, 도락산, 용두산, 사봉, 덕절산, 두악산에서 흘러내린 물들이 모두 모여 들어 사시사철 남한강으로 흘러내렸다. 그물이 남한강과 만날 즈음이면 힘이 부친 나머지 단양천은 그동안 가슴에 품고 왔던 돌과 모래를 풀어놓은 까닭에 여울진 합수머리에 늘 물 흐르는 소리가 있었다. 소리 없이 흐른 것이 강이라면 변화무쌍한 소리를 내며 노래하듯 흐른 물이 개울이었고 낮은 소리로 규칙적인 템포와 박자를 잡는 것이 바다였다. 흐르는 물 가운데 유독 소리를 낼 줄 모른 것이 강이었다. 강은 소리 없는 물줄기인 셈이다. 이런 점에서 합수머리에 여울진 소리가 있는 단양천은 강이 아닌 게 확실했다. 오히려 큰 개울이라고 하는 편이 더 어울릴 것 같았다. 그러나 이 큰 개울도 갈수기가 되면 바닥이 하얗게 속살을 드러냈고 줄어든 개울물이 그 사이를 비집고 흘러 내렸다. 큰 개울이 실개천으로 변한 탓에 나는 물길을 걸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5) 단양천 합수머리



(그림 16) 복도소와 마당바위 부근

사실 개울의 매력은 가만 갈수록 오르면 오를수록 너른 소(溜)가 있어 고인물이 흘러내렸고 주변에 바위가 많아 아름다웠다. 그물이 여울지며 흘러내리면 물 흐르는 소리는 소의 깊이만큼이나 깊어졌고 얕으면 얕은 만큼 물리 바위에 부딪치며 튀어오르며 물보라를 일으키며 내는 명랑하기 지극한 소리는 가히 일품이었다. 그 많고 다양한 소리가 중방리 앞녘 들판 앞을 지날 때 만해도 강바닥에 질펀한 강물에 부딪치는 소리도 단양천물은 손끝에 닿을 듯 꺾기에 칠랑거렸다. 이 물을 거슬러 밟고 우화교 다리 교각터를 지나 조금 더 가면 충주댐 담수로 단양수몰지역 기념관으로 이진 된 탁오대가 있었다. 이 바위에 퇴계 이황선생 앉아 발을 씻으며 이름 지었다는 탁오대 자리를 중심으로 두개의 징검다리가 놓여 있었는데 이것이 나들목 A와 B이다. 이를 건넌 하방리와 상방리 사람들은 외중방을 지나 계란재

를 너머 수산리로 나아가 청풍으로 갔으며 중방리 사람들은 늦재를 향했다. 여기서 한 이 백여보 더 거슬러 오르면 돈돌미와 중방리를 잇는 2개의 징검다리 C, D 나들목이 있었다. 돈돌미, 이곳은 벽향공촌(僻巷窮村)이었다. 얼추잡아 40여호 될까. 그런 집들이 두악산 산 끝자락에 추녀를 내라고 납작 엎드려 모여 살며 가파른 산비탈에 입귀놓은 화전을 가꾸면서 살아가는 동네였다. 여기서 동쪽으로 오십여 보 더 거슬러 가면 퇴계 이황 선생이 복도소를 막아져 수지를 만든 보, 복도별업이 나왔다. 이 세 개의 나들목이 산길로 늦재를 향한 길이었다.

새로 만든 우화교 다리 밑을 지나자 두악산 소금부지 봉우리가 훨씬 더 가깝게 다가선다. 이곳에 들어서면 합수머리 그 낭자했던 물소리도 사라지고 계곡의 물소리마저 숨죽은 듯 귀에서 멀어져 갔다.

갈대숲 사이로 희미하게 올라다 보이는 노송사이로 예음길이 한 가닥이 꼬리를 물고 사라지는 것이 보인다. 이 길이 중방리에서 일명사지로 가는 옛길이다. 복도소 끝자락부터 중방들 일명사지 앞까지 유독 큰 바위 작은 바위들이 뒤섞인 바위 별판이 질펀하게 전개된다. 그 바위 끝에 커다란 마당바위가 자그마한 소를 만들고 있는데 마당처럼 넓은 이 바위에서 마을 사람들은 정월대보름 풍년을 비는 제를 지냈고 가뭄이 심해지면 기우제를 지냈다. 돌밭 질펀한 개활지를 거슬러 바로 내를 건너 산길로 접어들면 작은 보름 큰 보름을 넘어 대잠리로 가게 된다. 하지만 그 산길을 택하지 않고 내를 따라 돌밭을 걸어 한 굽이 물길을 돌아 물고리들을 지나면 물골에 닿게 된다. 또 굽이쳐 한 굽이 솔숲 가득한 계곡 사이 돌밭을 더 걸어 오르면 역새와 갈대 흩어지는 계곡 저만치 펼쳐지는 개활지 왼편으로 3층 탑이 있었던 절터 탑배미가 보였고 그곳 살짝 냇물이 회 돌아친 곳 너머로 검동소(이무기가 나왔다는 소로서 주위바위가 검고 옛날에는 깊었으나 지금은 흔적만 남았다)와 물맛이 기막힌 냉천(冷泉)이 서로 이웃해 있다. 여기서 계속 물굽이를 거슬러 오르면 노솔가지 가득한 산등성이를 끌어안고 펼쳐지는 소선암계곡과 솔밭 그득한 대잠리 하선암의 절경을, 그리고 가산리 너머 도락산을 끼고 펼쳐지는 단양팔경(丹陽八景) 중 계곡미의 진경을 이루는 상선암, 중선암을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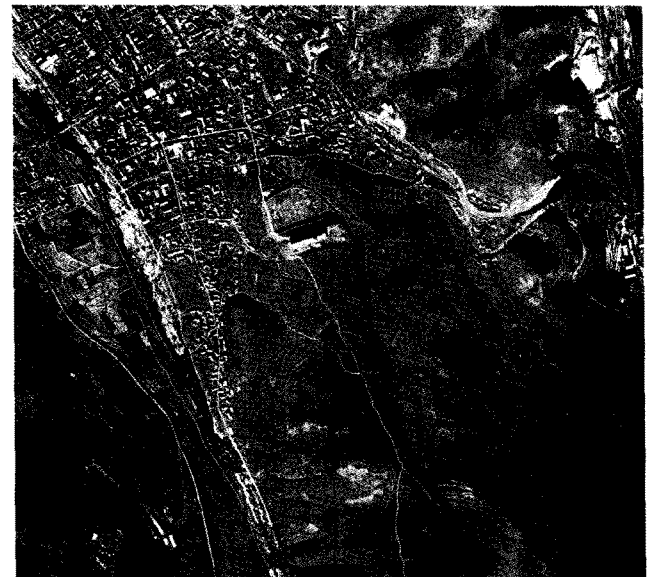
이런 까닭에 단양천 물줄기는 단양이 그저 단양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 개울물도 그저 개울은 아니었다. 산골짜기에서 이름 없는 돌멩이나 만지며 놀다 싶증나면 품고 내리던 그돌을 버리곤 강물로 사라져버리는 그런 물줄기가 아니었다. 밤이면 별들의 속삭임을 들을 줄도 알았고 낮에는 구름을 품어 색깔을 낼 줄도 알았던 물줄기였다. 단양천은 단양의 핏줄이자 역사의 시작이요 맥박인 셈이다. 단순히 산간벽지 소읍 변두리를 떠돌며 흐린 낮 빛으로 지나가는 어떤 때는 살아 있음의 의미조차 잊어버린 채 떠밀리고 또 떠밀려 서쪽으로 서쪽으로 밀려가는 그런 물줄기는 더 더욱 아니었다. 이 물줄기가 자신의 가슴속 품은 수많은 날들의 이야기를 마침내 수없는 선비들의 발걸음이 되게 했고 그들의 꿈이 되게 만든 개울이었다. 그런데 언젠가 이 개울이 사라진 것이다. 그 섬 없던 흐름이 멈추게 된 때문이었다. 머물게 된 개울은 소리를 잃어버렸고 스스로 시간의 바다이자 출발이며 완성이었음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강도 아닌 것이, 더더욱 개울도 아닌 것으로...

하지만 불과 사십년 전 만해도 A, B, C, D, E 다섯 개의 나들목을 통해 개울을 건너 중방리 모든 길은 늦재를 중심으로 두악산과 성재산을 향해 묘하게 걸쳐있었다. A와 B 나들목은 주거지를 끼고 늦재로 연결되는 골목길로 이루어져 있었고 C와 D 그리고 E 나들목은 골목길과 밭두렁길 산길로 변화되며 늦재로 연결된 길이었다. 이들은 모두 산길과 함께 절점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관심거리가 되었다. 이 사실은 읍내 도로 패턴이 어떻게 작은 고을 단양의 중심부를 관통해 남한강으로 빠져나가는 단양천변에 여러 개 나들목을 절점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질 수 있었을까 하는 물음으로 정리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생각들을 한마디로 요약한 갑작스러운 이 질문으로 생각이 분분해졌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방리 모습과 이 질문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C, D, E 나들목과 현실은 너무도 괴리가 컸다. 아예 모습 자체가 사라져 버렸으므로 생각 할수록 변화의 크기와 강도는 심했다. 그 간극이 의미하는 변화도 사실 토지 이용의 변화과정만 제대로 알게 된다면 간단히 정리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이것이 추측과 상상에 불과한 가설들이 억측으로 까지 변하면서 무성해진 데는 그 렷만한 이유가 있었다. 상방리와 두악산 산록 사이를 끊어내는 단



(그림 17) 1980년 단양 항공사진



(그림 18) 1970년 단양 항공사진

절이 생긴 탓에 이곳에 살았던 50~60대 계층이 아니면 외지인은 물론이고 이곳에서 태어나 줄곧 살고 있는 30대는 어느 누구라도 과거의 이곳 모습을 생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다. 이곳 산길의 언형을 기억해낸다는 것은 물론이고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다. 그것을 가려낼만한 사진은 결국 1985년 늦재에서 새로 지은 우화교를 잇는 길로 단양군청과 단성중학교 사이를 가르며 지나는 도로 개설로 나타났다. 당시 당국은 이 도로를 내리고 상방리에 축대를 쌓고 옹벽을 세운 결과 두악산 산록에 산재해 있던 산길이 모두 잘라져나가면서 그 유구했던 흐름마저 끊어내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상방리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그러자 상방리의 원형에 대한 관심은 이 도로를 왜 개설하게 되었는가에 쏠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궁금증은 이내 사그라들었다. 그런 사태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물론 충주댐 건설로 단양읍내가 수몰되자 현재 남아 있는 상방리 5번국도와 중방리를 지나는 36번국도 그리고 9번 국도를 연결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현대 문제는 1980년 항공사진을 검토해보자 이 도로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는데 있었다. 이 사진을 좀더 세밀하게 조사해보자 그 무렵 상방리 늦재 근처에 새로운 중심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은 단양군청사와 단성중학교였는데 두 시설물은 기능적으로 상호연계성은 전혀 없었다. 단지 두 건물 부지 사이로 발두령길이 한 가닥을 통해 연결되어 있었을 뿐이다. 바로 이 길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길의 선형이 현재 늦재를 향해 달리고 있는 36번국도와 일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나들목 길 가운데 세 가닥이 단성중학교 부지 모퉁이에 집결되어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이곳이 중방리 나들목을 거쳐 늦재로 향하는 상방리 산길의 교통 절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이 언제 생겨난 것일까.

단양군청사<sup>1)</sup>가 늦재에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인접한 상방리에 세워진 것은 1974년이었다. 그전까지 단양군 청사는 하방리에 일제 강점기 세워진 목조 단층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었는데 1972년 대홍수로 군청사가 침수되자 상방리 이곳 단성중학교 동쪽 능선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때문에 단양군청사 상방리 이전은 단성중학교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적인 안목보다도 홍수로 인한 침수를 피해 청사 이전에 필요한 빈터를 찾아 세워진 것뿐이었다. 그렇다면 1974년 이전 까지만 해도 단양군청사라는 논밭으로 존재해 있었던 셈이다. 그 모습을 1970년 항공사진을 통해 확인하게 되자 관심은 곧 사그라지고 말았다. 더 본원적인 원인을 단성중학교가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의 관심은 이 학교가 생긴 이유가 어떤 것인가로 옮겨졌다. 이 일을 조사하는 과정 역시 산길과 개울 나들목의 연관성

을 찾는 순서에서 별로 받아나 있지 않았다. 다만 집고 너머 가야 할 사실이 있다면 학교와 군청을 한 구역에 몰아둔 것은 토지이용 계획측면에서 볼 때 용도가 어울리지 않아 아귀가 맞지 않는 황당한 배치였다. 아마 당시 당국도 급하게 쫓긴 나머지 궁여지책으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정리했지만 이일을 하는 동안 줄곧 마음에 걸렸다.

과연 공립중학교인 단성중학교는 언제 왜 상방리에 생긴 것일까. 현재 남녀공학인 이 학교가 개교한 것은 1969년 3월 15일이었다. 그러나 그 줄기는 원래 1968년 12월 3일 6학급 설립인가를 받아 이듬해 이 자리에 개교한 단양여자중학교<sup>2)</sup>이었다. 하지만 그 학교 역시 뿌리는 하방리에 있었던 단양중학교<sup>3)</sup>이었다.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1945년 5월 1일 단양공립 공업전수학교로 인가를 받아 단양초등학교 부지에서 개교한 이 학교는 1945년 11월 단양공립 공업초급중학교로 승격되면서 6.6.4제 학교수업을 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이년 뒤인 1947년 3월 1일 단양초등학교 부지에서 독립한 이 학교는 하방리 260번지로 교사를 이전하여 독립된 캠퍼스를 확보하였다. 이후 1949년 5월 1일 단양중학교로 학칙 변경하고 1950년 5월 단양공업중학교(4년제)로 승격되었다. 그리고 1951년 8월 31일 교육법 개정으로 단양중학교로 개편되면서 학제가 6.3.3.4제로 바뀌면서 3년제 중학교로 운영되었다. 다시 1955년 6월 15일 영춘 분교장을 설립, 1964년 3월 6일 영춘 중학교로 승격 분리하였고 1969년 3월 15일에는 다시 단양여자중학교를 분리해 낸 것이다. 때문에 단양여자중학교의 뿌리는 하방리 단양중학교에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면 상방리 산길의 흐름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단성여자중학교가 들어서면서 부터였으므로 1969년 이전 이곳은 산길이 원형 그대로 있었던 셈이다. 이제 그 산길을 찾아내려면 1970년 이전 지도가 필요했고 그 속에 기록된 산길을 정리 종합해보면 나름대로 산길의 변화유형을 통해 단양읍의 도로패턴을 추정해 낼 수 있을 거라는 나름의 기대가 확산처럼 생겨났다.

늦재를 바로 겨냥한 두 가닥 길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닥 길은 단성중학교 건물부지에 막혀 발두령 길로 우회를 해야 했다. 덕분에 이 세 가닥 길은 돈돌미에서 들어와 성재산을 향한 등고선 길과 만나 택지주변을 맴도는 골목길로 성격이 변한 것이다. 단양군청의 상방리 이전과 단성중학교의 신설로 세 가닥 산길이 교살으로 골목길로 성격이 변해 버린 것이다. 그러나 1968년 이전에는 나머지 세 산길도 모두 중방리 사람들과 삼선 수석로에 살던 산촌 사람들이 늦재를 너머 기차를 타려고 갔던 사용했던 길이었으므로 이 길은 사실 늦재와 연결된 산길이 있었을 가능성이 컸다.

보다 원초적인 단양읍의 형태는 1970년대 단양의 모습에 있었던 셈이다. 이제 남은 일은 이때 단양모습을 1/5000지도에 복원하여 조선시대 도시 모습을 역산해 찾아내는 일이다. ■

1) 1914년 3월 1일 설치되었다.

2) 1984년 10월 31일 교명 변경인가를 받아 1985년 3월 1일 단성중학교로 교명 변경하였다.

3) 단양군 단양읍 하방리 260번지에 있었으나 1985년 5월 13일 충주댐 건설로 도전리 222번지로 교사 이전하였다. 1994년 5월 13일 과학관을 1996년 7월 16일 강당을, 2000년 10월 18일 급식소 및 사격장을 준공하였으며 2003년 7월 30일 과학관을, 2003년 10월 20일 도서관을 리모델링하였다. 2004년 10월 5일 발명공작실을, 2005년 5월 1일 개교 60주년 기념행사 및 역사관을 개관하였다. 교훈은 '당당한 사람'이며 교목은 주목, 교화는 철쭉이다. 남녀공학 16학급으로 편성되어있으며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222번지에 있다.